

# 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지

|    |                       |
|----|-----------------------|
| 차수 | 32차 정기                |
| 일시 | 18. 10. 15<br>18 : 30 |
| 장소 | 총학생회실                 |

참석확인 (11/13)

| 간호 | 경경 | 공대 | 사범 | 사과 | 약학 | 예술 | 인문 | 의학 | 자연 | 동연 | 부총 | 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고 안건

### 1. 2018-2 농민학생연대활동

: 전 단위 사고 없이 종료.

-인문대학: 여름방학 때 진행했던 마을로 버스 배치되어 도착에 어려움 있었음. 복귀 버스 중 경영경제대학, 인문대학 공용 차량 세부내용 협의되지 않아 일정 지체. 버스 별 책임자를 확실히 할 필요성.

-총학생회: 인문대학 농활 피드백 관련 파일, 중대중심 참조 요망.

### 2. 중앙대학교 100주년 기념식

-사회과학대학: 학생들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 다양한 문제 발생.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공지가 없었고, 출석 관련 공지 중복으로 문제 많았음. 수업에 임박하여 관련 공지를 하는 것은 수업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 교강사별 상이한 출석 인정 방법으로 인해 출석문제 심화. 중간고사에 임박하여 행사 진행되어 학생 입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었고, 부정확한 대리 출석 문제 발생. 진행상에 있어서는 성적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 등으로 진행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며, 외부인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기수단 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있던 점 역시 문제.

-예술대학: 외부인 출입 통제, 착석 자리 관련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예술대학 입장에 있어서 서울과 안성 분리가 미리 고지되지 아니하여 입장에 어려움 있었음.

-자연과학대학: 학교 행사를 위해 학생을 동원하였으나, 동원된 사람들에게 대한 처우에 문제가 있었음. 식사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식당 도착 이후 인솔자가 제대로 없는 등 방치되는 상황 발생. 강제 참석에 대한 불만 많았으며, 행사 전에 미리 진도나 수업과 관련한 소통이 있었어야 함. 본부 측의 일방적인 통보 식 행사로, 제대로 협의되지 않은 것에 의해 다양한 문제 발생했다고 생각.

-인문대학: 인문대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이전. 회의 이후 문서로 피드백 할 것.

-총학생회: 식사, 좌석 등의 부분에서 미리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함. 당일 오전 버스 탑승자 명단을 받아 일을 처리하려 했으나 받은 대로 진행되지 못해 어려움 있었음. 각 단과대학 별로 주신 다양한 피드백 전달하여 차후 행사 진행 원활하도록 할 것.

-사회과학대학: 교학지원팀 직원에 대한 학생의 직접적인 요구로 기존 미제공 공지되었던 식사가 준비되기도 함. 행사 진행 절차나 공지, 의사 결정에 있어서 일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 □ 논의 안건

### 1. 2018-2 예산자치제

: 기준안 네 가지(공공성, 수익사업 여부, 모임 취지 적합성, 사업 내역서 합리성), 전원 동의로 의결 완료. 심사 내용, 파일 참조. 일부 제출단체, 추가 서류제출 요망되어 해당 내용 발신할 것. 긴급중운위에서 예산자치제 심의 추가 진행하여 완료 예정.

## 2. 2019 대표자 선거

: 타 학교의 모바일 투표 진행사례 제시. 이번 선거에 있어서 투표율 상승/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의견 여쭙는 바. 파일 참조 요망.

-예술대학: 모바일 투표 사고 사례가 있지는 않은지? 신뢰성 문제. (총학생회: 국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아직까지 모바일 투표에 의한 대학 선거 사고 사례 보고된 바 없음.) 투표소 접근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 생각.

-사회과학대학: 투표율 상승 등 긍정적인 측면 있으나, 중선관위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될 것. 선거 문화와 후보자 등을 관리하고 투표 독려를 진행하는 역할이 상당히 축소될 것. 또한 인터넷 망 문제로 투표 지장이 많았으므로, 이 부분 개선 요망.

-경영경제대학: 문자로 링크 발송될 경우 현재 학교 시스템 상 등록된 번호 외의 다른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링크를 원활히 받지 못할 가능성 있으며, 모바일 연락을 잘 확인하지 않을 경우 참여 접근성에 대한 기존 의도를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음. 기존 투표소 수에서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한다면 더욱 원활한 선거 가능할 것.

-인문대학: 비밀 선거 등, 선거 원칙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 있으며,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각 선본원이 투표 독려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부분 등에서 감시가 어려워질 것. 각 선관위의 노력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 원칙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모바일 투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 만약 투표율 감소로 선거 진행이 어렵다면 당선 기준을 낮추는 것으로 보완 가능할 것.

-자연과학대학: 기존 업체와 가격 차이가 있는지? (총학생회: 이만 명 기준으로 링크 송부하는 등 선거 진행에 대한 비용으로 약 구백만 원 예상. 기존 투표 진행 방식은 2일 선거 기준으로 천삼백만 원 소요되며, 하루 연장 시 약 삼백만 원 추가 소요.)

=4단위(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확정적 반대 의견, 논의 보류.

## 3. 자연과학대학 발의 - 수의계약 관련 의혹 관련

: 학내 건물,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통한 건설 진행 의혹 발생. 교육기관에서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해당 비리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자보 등으로 전달할 필요성.

-인문대학: 중앙대학, 도덕적인 비판 피할 수 없을 것. 학교 본부는 기간 단축을 위해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러 학내 구성원에게 손해가 되었다면 더욱 문제가 심각해질 것. 또한 실질적인 학교의 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입장 필요.

-총학생회: 자연과학대학, 해당 안건으로 중앙운영위원회의 단체 행동을 발의. 긴급중운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각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의견 수렴하여 회의 참석 요망.

## □ 기타 안건

### 1. 단위별 행사

: 간식사업(동아리연합회 10월 16일 / 사회과학대학 10월 16일 / 경영경제대학 10월 24일 / 자연과학대학 10월 19일 / 간호대학 10월 23일 / 예술대학 11월 5일 / 사범대학 10월 16일 / 인문대학 10월 17~18일)

### 2. 단과대학 방문

: 간호대학 일정 확정. 사범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예술대학 일정 조정 요망.